

# 보호와 전승 속에 발전하는 민족문화

## — 무형문화유산 뚝족의 대가·고루·랍염



▲ 대자연을 무대로 펼치는 뚝족 대가 공연 현장

귀주성 김동남뚝족문화자치주 려평현 조흥 뚝족마을(侗寨)은 북송(960년-1627년)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뚝족 마을의 하나이다. 조흥 뚝족 마을의 민족문화는 생기로 차넘친다.

### 뚝족 대가

귀주성 남부 뚝족지역 민간에서 전해지는 다성부 합창 형식의 뚝족 대가(大歌)는 지휘자와 반주가 없고 자연적인 하모니가 주요 음악적 특징이며 스승이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요 전승 방식이다.

뚝족 대가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뚝족 주민들에게 노래와 식사는 똑같이 중요하다. 려평현에는 마을마다 뚝족대가팀이 있는데 명절에는 공연을 펼친다. 뚝족 마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서 노래를 배운다. 특별한 환경과 짙은 분위기 덕분에 뚝족 대가는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 려평현은 2022년 5월 뚝족 대가 전승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자금을 지원해 뚝족 대가의 수집, 정리, 편집, 출판 및 전승자 양성, 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다.

### 뚝족 마을 고루

뚝족 목조건축 기술은 주로 귀주성의 려평, 용강, 중강; 광서좡족자치

구의 삼강, 용수; 호남성 퉁둥 등 뚝족지역에서 계승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뚝족 고루(鼓楼)와 화교(花桥)이다.

뚝족 목조건축 기술은 2008년 제2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환경과 짙은 분위기 덕분에 뚝족 대가

뚝족 사람들은 고루를 보면 고향을 본 듯하다고 말한다. 뚝족 마을의 고루는 일반적으로 가문의 성씨에 따라 지어진다. 조흥 뚝족 마을에만 해도 5개의 고루가 있다. 이곳은 북을 쳐 사람들을 모아 공무를 논의하는 회의실일 뿐만 아니라 사교와

오락, 명절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다. 먼저 고루를 지은 뒤에 마을이 세워진다. 고루는 뚝족 마을의 랜드마크와 문화 전승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오늘날 전통 마을의 보호가 점점 강화되고 목조건축물을 짓는 장인들의 발전 공간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통 기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랍염과 자수

뚝족 전통 수공예인 뚝족 자수와 랍염(蜡染, 밀초를 사용하여 물들이는 일) 기술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예전에는 랍염 기술로 염색한 천으로 옷을 지었지만 지금은 장미꽃, 컵받침, 가방 등을 만들 수 있고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다.

민족 자수와 랍염 제품은 농촌에서 도시로, 국외로 진출해 산업 규모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자수 장인들의 소득 증대와 부유의 실현을 돕고 있다.

/인민일보



▲ 랍염 수공예 기술로 염색한 천

## 무형문화유산

# ‘대나무 공예’, 예술 매력으로 생기 되찾아

대나무 껍질은 얼마나 얇게 깎고 가늘게 늘일 수 있을까? 귀주성 적수시 견수대나무공예발전회사 사장 양창근의 손에는 A4 용지 한장 두께의 대나무 껍질이 놓여있다. 이는 가장 얇은 대나무 껍질 4장을 접은 것이다.

대나무 그림, 대나무 액세서리, 죽사구자(竹丝扣瓷)... 적수시 대동진에 위치한 ‘극죽당’ 대나무 공예기지 전시홀에는 수천점의 특색 있는 대나무 공예품이 놓여있어 관련 공예 예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적수 죽편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는 이 전통 기예를 잘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과 편집 기술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창근 사장의 말이다.



▲ 대나무 껍질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양창근 사장

적수 하곡에는 드넓은 대나무숲이 펼쳐져있다. 적수시는 귀주성에서 대나무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

재 대나무숲 면적은 8만 8,533 헥타르에 달한다. 지난 2023년 중국림업산업연합회는 적수시에 ‘중국 대나무 도시’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신화넷

# 영화 열기 지속, 3월 20 여편 신작 개봉



▲ 《날고 싶은 소녀》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 주요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20 여편의 신작 영화가 비성수기인 3월의 영화 시장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3월에는 여성 주제의 영화 작품들이 많이 개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들은 여성의 운명을 통해 자유와 존엄, 사랑을 다루고 있다.

영화 《날고 싶은 소녀》(想飞的女孩)는 문안(文晏)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배우 류호준(刘浩存)과 문기(文淇)가 연기한 사춘기 자매가 마약 소굴에서 탈출한 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 서로를 구원하는 힘든 여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범죄와 성장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또 꿈에 대한 인간의 탐구를 담아내 올해 베를린영화제 주요 경쟁부문에

진출하며 관심을 끌었다.

장범(张帆)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창산》(苍山)은 섬세한 여성 시각으로 방랑과 귀속 등의 주제를 탐구하며 대비를 통해 고향과 귀속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주인공이 이국타향에서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영화 《우리에게는 아직 래일이 있다》(도 3월의 개봉작으로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가정 폭력, 성차별 등 현실 문제를 반영하고 그들의 각성과 항쟁을 디테일하게 그려낸다.

이외 재상연 영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3월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말 상연되는 클래식 영화 《천녀유혼》(倩女幽魂)은 복원버전으로

스크린에 다시 복귀해 판타지와 무협의 절묘한 케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전망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채 안되지만 영화 시장의 년간 흥행 수입은 이미 230억원을 돌파해 작년 전체 흥행 수입 425억 200만원의 54%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초 개봉한 우수한 작품들이 흥행과 호평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며 관객들의 영화 관람 열정을 자극한 덕분이라 하겠다.

천진영화회사 매니저 량욱(梁煜)은 “3월은 비수기지만 나를 독보적인 해내의 신작과 《나타 2》의 열기에 힘입어 월간 영화 흥행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온라인

# 장광삼 중국작가협회 신임 주석으로

3월 20일, 중국작가협회 제 10기 8차 주석단회의 및 제 10기 5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조직부 관련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의 결정을 선포하고 설명했다. 중앙선전부 관련 책임자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했다.

중앙의 결정에 따라 제 10기 8차 주석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 10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장광삼(张宏森)을 중국작가협회 제 10기 전국위원회 주석으로 선거했다. 업무 수요에 따라 철응(铁凝)은 더 이상 중국작가협회 주석을 겸임하지 않는다.

장광삼은 이번 작가협회 주석으로 임명되기 전 이미 중국작가협회에서 당조서기, 부주석, 서기처 서기 직무를 거의 5년간 역임했으며 이전 경력도 대부분 문예 문화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그전에 산둥성 로동모범으로 선정되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광삼은 1964년 8월 산둥성 자박에서 태어났으며 자박사범전문학교 중문학 전공을 졸업하고 전문대학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학 창작 1급(정고급) 직함을 갖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 제 3회 새별아동문학상 시상식 연길서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가 주최하고 항향골든해양항운그룹에서 후원한 제 3회 새별아동문학상 시상식 및 아동문학세미나가 3월 21일 연길에서 펼쳐졌다.

제 3회 새별아동문학상은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론, 아동소설, 동화, 동시 총 28편을 응모받은 가운데 리영철의 동화 <코끼리거부기 디디>, 정문준의 아동소설 <푸른 앵술나무>, 남송화의 동시 <떡보(외 2수)>가 새별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 리화화는 심사평에서 “아동문학은 아이들 자신의 유치한 문학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한 고상한 문학과 성인들이 소년아동을 심신에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학이다.”라고 말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이며 아동문학창작위원회 주임인 김진화는 이날 축사에서 “아동문학은 여느 문학과 달리 아이들의 성장에 무한한 영향을 준다. 밝은 등대마냥 아이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신기한 열쇠마냥 아이들 심령의 상상력과 지혜의 대문을 열어준다.”며 “아동문학을 위한 길에서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고 호소했다.

연변조선족아동문학연구회 회장 김자형은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은 사명감을 안고 더욱 많은 훌륭한 아동문학 작품을 창작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후반부에 펼쳐진 아동문학세미나에서는 아동문학 이론가, 평론가인 김만석(명예회장)이 <아동소설과 그 창작>과 관련해 문학 이론 강좌를 펼쳤다.

/연변일보

# ‘아리랑수필문학상’ 공모 곧 시작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아리랑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협회는 조선족 수필 문학의 발전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아리랑수필문학상’을 제정하고 올 4월 1일부터 명년 3월 31일까지 공모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작품은 우리나라 국가 공식 등록 문예지의 수필 작품 취급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며 지역 또는 거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바 신진작가나 기성작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의 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응모작품은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한다.

공모를 보다 실속 있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아리랑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 과정을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조선족 수필 문학 창작을 독려하고 더 많은 작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글짓기 대회와는 차별화하여 특별히 수필이라는 장르

로 한정하였는바 이에 걸맞게 전반 진행 과정에서 수필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문학예술적 성취도 섬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독자들의 평가와 반향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채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여 참조하는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의 다각도, 다층화적인 평가를 추구하여 수상작을 공정하게 선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육일승천의 기세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리용 또는 부분적 활용에 대해서는 절대 불허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내세웠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기술적으로 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 접수 시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응모작품은 해당 메일(alrshmp@163.com)로만 접수한다.

공모전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 금상, 우수상 등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상금 각 3만원, 1만원, 5,000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시상식 후 해당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로녕신문



# 안도현문화관, 전통예술 새 활력 발산

안도현문화관에서는 3월 17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구룡가두, 장흥가두, 웅성가두에서 룡속 무형문화유산 무용 양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용은 조선족춤, 조선족아바춤, 조선족가면무, 조선족타악 등 국가급, 성급, 주급, 현급 대표적 무형문화유산 종목들로서 많은 수강생들이 있다 투여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조선족가면무 양성 현장. /안도현문화관